

자 모란트, NBA 기량발전상 수상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자 모란트가 지난 25일 NBA 사무국이 발표한 2021-2022시즌 NBA 기량발전상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지난 2019-2020시즌 신인왕을 차지했던 모란트는 역대 최초로 신인왕과 기량발전상을 모두 받은 선수가 됐다.

농구 매체 '잡프볼'에 따르면 기량발전상 경쟁은 매우 치열했다. 모란트는 투표에 참여한 100명 중 1위 표 38개, 2위 표 9개, 3위 표 4개를 획득, 총 221점을 얻으며 디온테 머레이(샌안토니오, 183점), 대리우스 갈랜드(클리블랜드, 178점), 조던 풀(골든스테이트, 131점), 데스몬드 베인(멤피스, 74점), 타이리스 맥시(필라델피아, 52점)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 자 모란트, 사진=twitter(NBA)

올 시즌 평균 27.4점 5.7리바운드 6.7어시스트 1.2스틸을 기록하며 멤피스를 정규리그 2위에 올려 놓은 모란트는 득점과 리바운드, 어시스트 등 모든 지표에서 커리어하이로 작성했다. 특히 올 시즌 페인트 존 평균 득점 16.6점으로 이 부문 전체 1위에 오르는 등 인사이드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생애 첫 올스타에 선정되는 영광까지 누렸다.

지난 2019-2020시즌 신인왕을 차지한 모란트는 2시즌 만에 기량발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기량발전상을 수상한 모란트는 "상은 내가 받았지만, 팀워크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절대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고 싶어한다."며 팀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조코비치, Wimbleton 4연패 청신호 켜졌다

노바크 조코비치(세계1위·세르비아)가 Wimbleton 4연패를 넘볼 수 있게 됐다.

지난 28 'MHN스포츠'에 따르면 Wimbleton을 주최하는 론테니스클럽의 샐리 볼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영국 정부가 대회 참가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제외됐다."면서 "여전히 백신 접종은 장려되지만 필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조코비치는 지난 1월 호주오픈에 출전하려고 했지만, 백신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호주에서 추방됐다. 조코비치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면 5월 열리는 프랑스오픈과 6월 열리는 Wimbleton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런데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각국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조코비치는 프랑스오픈과 Wimbleton에 출전할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조코비치는 Wimbleton 4연패를 노릴 수 있게 됐다. 더구나 세계랭킹 2위 다닐 메드베데프와 8위 안드레이 루블료프 등 러시아, 벨라루스 선수들은 올해 Wimbleton에 출전할 수 있게 돼 우승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 노바크 조코비치, 사진=shutterstock

조코비치는 메이저 대회 최다 우승 기록에도 도전한다. 조코비치는 지난해 4대 메이저대회 단식 결승전에 모두 진출해 호주오픈과 프랑스오픈, Wimbleton에서 우승, 함께 '빅3'로 꼽히는 라파엘 나달(4위·스페인), 로저 페더러(41위·스위스)와 메이저 대회 최다 우승(20회) 기록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러나 백신 미접종으로 출전하지 못한 호주오픈에서 나달이 우승하면서 조코비치는 이 부문 공동 2위로 내려앉아 있다.

미컬슨, 슈퍼리그 출전 허가 요청



▲ 필 미컬슨, 사진=golfdigest

필 미컬슨(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슈퍼골프리그로 향할 전망이다.

지난 26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는 이날 "세계랭킹 100위 이내 15명을 포함한 70명의 선수가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리브 골프인비테이셔널 시리즈 첫 대회에 출전 신청을 했다. 비밀유지약정에 따라 선수를 공개할 수는 없다."는 리브 골프인비테이셔널 대변인의 말을 전했다. SI는 "미컬슨이 리브 골프인비테이셔널 첫 대회 출전을 위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허가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미컬슨은 일찌감치 리브 골프인비테이셔널 출범을 지지했다.

PGA 투어 선수가 PGA 투어 주관 혹은 공동 주관 대회 외 출전을 원하면 45일 전에 사무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리브 골프인비테이셔널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지원하는 대회로 PGA 투어 및 DP 월드투어(유러피언투어)는 소속 선수들이 이 대회에 출전할 경우 영구제명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미컬슨 외 가르시아스페인, 이안 풀터(잉글랜드), 루이 우스투이젠(남아공), 재미교포 케빈 나 등도 리브 골프인비테이셔널 첫 대회에 출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리브 골프인비테이셔널은 6월 영국 런던 근교 엔트워스에서 첫 대회를 연다. 총상금 2,500만 달러로, PGA 투어를 대표하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2,000만 달러)보다 상금이 많다. 이후 10월까지 5번의 대회가 진행되고, 이후 시즌 최종전 개념으로 총상금 5,000만 달러 규모의 대회가 열린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Home Remodeling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